

경관방각소설의 간기에 대한 연구*

이 창 현**

차 례

- | | |
|-------------------------------------|------------------------|
| I. 서론 | III. 간기의 형식에 따른 분류와 검토 |
| II. 박성칠서점의 판권지를 통해서
살펴본 판(板)의 개념 | IV. 간기의 형식과 그 의미 |
| | V. 결론, 그리고 남는 문제들 |

I. 서론

고전소설을 책의 형태로 제작하는 방식 곧 하얀 지면에 글자를 드러내는 방식에 따라 구분하면 필사본, 방각본, 활자본 소설이라는 구분이 가능하다.¹⁾ 이 가운데 방각본의 형식으로 출판된 소설은 종수(種數)에 있어서 비교적 소수를 차지하고 있다. 고전소설 가운데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것은 필사본 소설이며, 필사본 소설의 사적 전개는 방각본 소설의 사적 전개에 비하여 더 장구하다. 필사본 형식으로 제작된 소설책에

* 이 논문은 2004년도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KRF-2004-041-A0024).

** 명지대학교 국어국문학과

1) 이상택 외, 『한국고전소설의 세계』, 돌베개, 2005, 230-233쪽; 류탁일, 「출판사적 측면에서 본 고소설의 사적 변용」, 『한국문헌학연구』, 1990, 242-249쪽 참조.

만 의존해서는 독자의 수요를 더 이상 감당하기 어렵다는 판단에 이르게 되었을 때 등장할 수 있었던, 방각본 형식으로 제작된 소설책은 고전 소설 전체에 비추어 본다면 분명 소수에 속하는 작품들이다. 이처럼 중수라는 측면에 있어서 소수임에도 불구하고, 이들 방각본 형식으로 출판된 소설을 중시하는 이유는, 이들 소설이 시장에서의 판매를 목적으로 소설책이라는 형태를 갖춘 문화 상품으로 대량 생산되었다는 점 때문이다.²⁾

그리고 지금까지 이들 방각본으로 간행한 소설 자료를 정리함에 있어서, 방각이 이루어진 지역에 따라 형태적 특성 등등이 달리 나타난다는 점에 주목하여, 먼저 방각이 이루어진 장소를 중심으로 이들 방각본 형식의 소설을 경판본(京板本), 안성판본(安城板本), 완판본(完板本)으로 구분하여 정리하고 있다. 특히 필자의 경우 경판본과 안성판본 사이의 밀접한 관련성과 특성을 고려하여 경판본과 안성판본을 하나의 연구 대상으로 아우르면서 이를 경판방각소설(京板坊刻小說)로 지칭하고 있다. 물론 이러한 필자의 견해에 대해서 “안성방각본에 대한 편견”이라는 문제제기도 있는 것이 사실이며,³⁾ 안성 지역의 방각본을 연구하는 가운데 나타나는 이러한 문제 제기는 지극히 당연한 것이라 하겠다.

이들 경판방각소설의 서지 사항에 대한 정리, 각각의 이본들 사이의 상관 관계 등은 최근에 들어서 매우 구체적인 형태로 상세히 정리·검토된 바 있으며, 이러한 작업 가운데 이들 경판방각소설의 유간기본(有刊記本)에 대한 일차적 자료 정리가 방각소(坊刻所)를 중심으로 이루어

2) 방각소설의 출현은 곧 서민문화의 팽창이라는 문화적 현상이다. 방각본의 출현 자체가 일부 계층의 소유물로만 여겨지던 서적의 대중화에 기여한 것이라면, 방각소설의 출현은 일부 계층의 소유물로만 여겨지던 문학적 활동이 대중화되는 것을 말한다. 이창현, 『경판방각소설판본연구』, 태학사, 2000, 536쪽.

3) 최호석, 『안성의 방각본 출판 입지』, 『19세기말~20세기초 안성지역의 출판문화연구(I)』,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안성문화원, 2005.6.3. 발표요지 참조. 필자 역시 “안성방각본의 독자성 내지 특성을 부인”하기 위하여 안성판본을 경판방각소설로 통합하여 지칭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밝혀둔다.

졌다.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 경판방각소설(京板坊刻小說) 유간기본(有刊記本)에 나타나는 간기(刊記)와 관련된 사항들이 충분히 검토·논의되었다고 하기에는 아직 미진함이 많다.

이해를 돕기 위하여 먼저 임경업전의 말미에 나타나는 ‘세경자맹동경기개판(歲庚子孟冬京畿開板)’이라는 간기(刊記)⁵⁾를 예로 들어 이를 살펴보기로 하자. 위의 간기는 다음과 같은 세부적인 사항을 드러내 준다.

먼저 ‘세경자(歲庚子)’는 경자년인 1780년에 간행한 것이라는 점에서 요즈음의 출판년월일 가운데 출판년도(出版年度)를 표시한 것이다. ‘세경자(歲庚子)’와 같은 천간지지(天干地支 곧 干支)에 의한 표기는 이본들 사이의 대조와 비교를 통하여 출판년도(出版年度)를 어느 정도 확정하는 것이 가능하고, 실제 간기 중 상당수는 출판의 절대년도가 밝혀졌다.

다음 ‘맹동(孟冬)’이라는 표지를 통하여 음력 10월을 드러내 줌으로써 출판월(出版月)을 표시한 것이다. ‘맹동(孟冬)’과 같은 표기는 작품이 유통되던 당대에 월력(月曆)을 표시하기 위해 사용한 방식이기에 출판월(出版月)을 확인하는 일 또한 그다지 어려운 일은 아니다.

그리고 ‘경기(京畿)’라는 표지를 통하여 방각이 이루어진 방각소(坊刻所)를 표시함으로써 요즈음의 출판사명(出版社名)을 표시한 것이다. ‘경기(京畿)’와 같은 방각소(坊刻所)는 방각소를 중심으로 각각의 방각소에서 간행한 방각소설의 목록이 정리되고 아울러 방각소의 개략적인 위치까지 밝혀졌다.⁶⁾

4) 이창현, 『경판방각소설판본연구』, 태학사, 2000, 443-462쪽.

5) 이 간기는 1780년에 임경업전이 방각되었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간기이다. 이창현, 『소설 방각본의 한글 각자체 소고』, 『민족문화』 28, 2005, 242-243쪽 참조.

6) 방각소의 위치가 모두 다 밝혀진 것은 아니다. 여기서 언급하고 있는 경기(京畿) 역시 정확한 장소를 알 수 없다. 현재까지 추정된 방각소의 개략적인 위치에 대해서는 이능우, 『고소설연구』, 이우출판사, 1980, 249-268쪽; 류탁일, 『한국문헌학

끝으로 ‘개판(開板)’이라는 표지를 통하여 이 판본(板本) 곧 판목(板木)의 제작이 임경업전이라는 소설책의 출판에 있어서 어떠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가를 밝혀주는 것으로 보인다. 요즈음의 출판 방식과 관련시켜 이를 설명한다면 초판(初版)이니 재판(再版)이니 삼판(三版)이니 개정판(改訂版)이니 하는 판수(版數)와 관련된 표현으로 보인다. 이를 초쇄(初刷)니 이십일쇄(二十一刷)니 하는 쇄수(刷數)로 이해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개판(開板)’이나 ‘신판(新板)’이라는 표지를 통하여 드러내고자 한, 해당하는 소설책의 출판에 있어서 이 판본(板本) 좀 더 정확히는 판목(板木)의 간행이 어떠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가를 밝혀주는, 용어의 구체적인 의미와 기능에 대한 해명은 비교적 소략하여, 간기를 구성하는 여타의 다른 부분에 대한 연구 성과와는 달리 미진함이 많이 남아 있는 것으로 보인다.

흔히 간기에 나타나는 ‘개판(開板)’ ‘신판(新板)’ ‘판(板)’ ‘개간(開刊)’ ‘신간(新刊)’ ‘중간(重刊)’과 같은 표지가 구체적으로 어떠한 의미를 지니며, 이들이 어떠한 기능을 수행하는지를 밝히는 일은, 단순히 고전소설의 간기(刊記)에 대한 연구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진 18세기와 19세기에 집중된 상업적 출판 전반에 대한 구체적인 이해를 가능하게 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연구 작업이라 하겠다.

이러한 점들을 해명하기 위하여 여기에서는 간기에 나타나는 ‘개판(開板)’ ‘신판(新板)’ ‘판(板)’ ‘개간(開刊)’ ‘신간(新刊)’ ‘중간(重刊)’과 같은 표지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용되고 있으며, 해당하는 자료와 이들 자료와 선후 관계를 이루는 자료 사이의 상호 비교를 통하여 이들 표지가 지닌 그 구체적인 의미를 밝히고자 한다. 이를 규명하기 위해서는 먼저 여기에서 사용하고 있는 판(板)이나 간(刊)이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를 지니는가를 먼저 살펴야 하나, 간(刊)의 개념을 짐작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는 보이지 않는다. 다만 박성칠서점의 판권지를 통하여 판

연구』, 1990(재판), 155-178쪽 참조.

(板)의 개념을 어느 정도 미루어 짐작할 수 있을 뿐이다.

따라서 여기에서 이루어지는 논의는, 간기의 기록 중 그동안 논의가 미진하였던 이들 표지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하는 시론으로서의 성격이 강함을 미리 밝혀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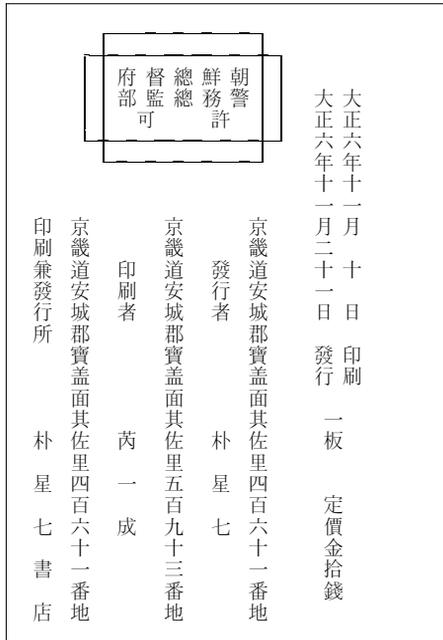
2. 박성칠서점의 판권지를 통해서 살펴본 판(板)의 개념

방각본으로 간행된 소설책의 전후에 침부된 형태로 남아있는 판권지는, 판목(板木)을 판각하면서 꾸준히 사용해왔던 간기(刊記)와는 달리, 1909년 출판법의 시행으로 말미암아 나타나게 된 새로운 현상이다. 이들 여러 종류의 판권지 중에서도 특히 관심을 끄는 것은 판수(板數)⁷⁾에 대한 기록이 남아있는 박성칠서점의 일부 판권지이다. 박성칠서점의 판권지 중에서 판수가 나타나는 것으로는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일판(一板)임을 밝히고 있는 판권지이며, 다른 하나는 이판(二板)임을 밝히고 있는 판권지이다.

먼저 일판(一板)임을 밝히고 있는 판권지를 살펴기로 하자. 이들 판권지는 양풍운전, 진대방전, 홍길동전 등에서 나타나는데, 그 개략을 보이면 다음과 같다.⁸⁾

7) 오늘날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판수(版數)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판수(板數)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은 방각본의 출판이 활판(活版) 인쇄술이 아닌 목판(木板) 인쇄술로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여기에서 판권지(版權紙)라는 용어 대신에 판권지(板權紙)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도 같은 이유에서이다.

8) 이창현, 「안성지역의 소설 방각활동 연구」, 『한국문화』 24, 서울대한국문화연구소, 1999, 135-136쪽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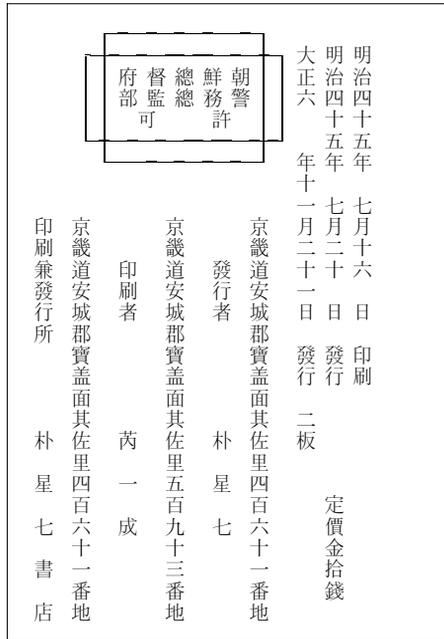


이 판권지에서 제1판을 발행한 것으로 밝히고 있는 대정 6년은 1917년이다.

印刷兼發行所	發行者	印刷者	發行年月日	板數
朴星七書店 京畿道安城郡 寶蓋面其佐里 四百六十一番地	朴星七 京畿道安城郡 寶蓋面其佐里 四百六十一番地	芮一成 京畿道安城郡 寶蓋面其佐里 五百九十三番地	大正6年11月10日 印刷 大正6年11月21日 發行	一板

여기에서 집중적으로 검토하고자 하는 판권지는 이판(二板)임을 밝히고 있는 판권지이다. 이들 판권지는 조웅전과 춘향전에 첨부되어 있는데, 그 개략을 보이면 다음과 같다.⁹⁾

9) 이들 이외에 삼국지, 심청전, 장풍운전에도 이들 판권지가 첨부되어 있다고 한다. 이정원, 『안성판 방각본 출판 현황』, 『어문연구』 127(33권 3호), 한국어문교육연



이 판권지에서 2판이라고 밝히고 있는 대정 6년은 1917년이며, 처음 발행 곧 1판 발행으로 해석할 수 있는 명치45년은 곧 1912년이다.

印刷兼發行所	發行者	印刷者	發行年月日	板數
朴星七書店 京畿道安城郡 寶蓋面其佐里 四百六十一番地	朴星七 京畿道安城郡 寶蓋面其佐里 四百六十一番地	芮一成 京畿道安城郡 寶蓋面其佐里 五百九十三番地	明治45年 7月16日 印刷 明治45年 7月20日 發行 大正 6年11月21日 發行	二板

여기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이판(二板)이라는 표현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하는 점이다.

조웅전의 경우, 동일한 판목을 사용하여 이미 명치 45년(1912년)에 조웅전 제1판을 인행하였고, 대정 6년(1917년)에 제2판을 간행하였다.¹⁰⁾

구회, 2005, 176쪽 참조.

마찬가지로 춘향전 역시 <안성동문이신판>이라는 간기를 가진 판목을 사용하여 명치 45년(1912년)에 춘향전 제1판을 발행하였고, 대정 6년(1917년)에 제2판을 간행하였다.

이때 제1판을 간행하면서 첨부한 판권지가 박성칠서점의 판권지인가 아니면 북촌서포의 판권지인가 하는 점이다. 박성칠서점에서 제1판으로 된 판권지를 첨부한 경우¹¹⁾는 앞서 살핀 바와 같이 대정 6년(1917년)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에 해당하는 작품으로는 양풍(운)전 입장군전 진대방전 홍길동전이 있다. 이들은 모두 북촌서포에서 간행한 적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반면에 제2판으로 표기된 박성칠서점의 판권지를 첨부한 작품인 조웅전과 춘향전¹²⁾은 모두 명치 45년(1912년)에 북촌서포에서 간행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곧 제2판이라는 개념이 동일한 출판사인 박성칠서점에서 제1판을 간행하고 이후에 동일한 출판사인 박성칠서점에서 제2판을 간행하였다는 의미가 결코 아니라는 것이다. 오히려 다른 출판사 곧 북촌서포에서 제1판을 간행하고 이를 안성이라는 동일한 지역에 있는 다른 출판사 곧 박성칠서점에서 간행할 때에 제1판이라는 표현 대신에 제2판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였다는 결론에 이른다.¹³⁾

10) 이창현, 『경판방각소설 조웅전 판본 연구』, 『고소설연구』 7, 1999, 201쪽.

11) 이정원의 조사에 따르면 소설로는 양풍운전, 입장군전, 진대방전, 홍길동전에서 그리고 비소설로는 계몽편언해에서 이 판권지를 확인할 수 있다. 이정원, 『安城板 坊刻本 출판 현황』, 『어문연구』 127(33권 3호), 한국어문교육연구회, 2005, 174쪽.

12) 이창현, 『경판방각소설판본연구』, 태학사, 2000, 469쪽; 이정원, 『安城板 坊刻本 출판 현황』, 『어문연구』 127(33권 3호), 한국어문교육연구회, 2005, 174쪽 및 176쪽 참조.

13) 가령 “북촌서포와 박성칠서점은 發行者가 같고 版次를 따로 하지 않았다는 점, 즉 북촌서포에서 발행한 책을 박성칠서점에서 다시 발행할 적에 새롭게 版次를 매기는 것이 아니라 북촌서포의 후속 版次를 썼다는 점”이라는 지적과 “북촌서포본과 박성칠서점본에 찍힌 版次의 연속성을 근거로, 박성칠서점의 再版本들에겐 북촌서포의 初版本이 있었음을 추정할 수 있게 하는 실마리가 되었다”는 지적이 이를 잘 드러내는 것으로 보인다. 이정원, 『安城板 坊刻本 출판 현황』, 『어문연구』 127(33권 3호), 한국어문교육연구회, 2005, 174-175쪽 및 177쪽 참조.

이는 출판법이 처음 시행되던 1912년부터 1917년에 걸쳐 사용한 판(板)이라는 용어의 개념이 오늘날 사용하고 있는 판이라는 용어의 개념과 많이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으로, 이를 통하여 출판법 시행 이전에 사용한 판(板)이라는 용어의 개념에 대한 추정을 어느 정도 가능하게 한다. 아울러 간(刊)이라는 용어의 개념 역시 여기에서 파악한 판(板)이라는 용어의 개념과 유사한 것으로 이해하여도 크게 그릇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3. 간기의 형식에 따른 분류와 검토

논의를 진행하기 위하여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작업은 경판방각소설 자료들 가운데 간기가 있는 유간기본(有刊記本)을 확인하고 여기에 나타나는 간기(刊記)를 정리하는 일이다.

이들 자료를 검토한 결과, 각각의 간기에 나타나는 표지를 그 형식에 따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1) ‘개판(開板)’ ‘신판(新板)’ ‘장판(藏板)’ ‘판(板)’과 같이 ‘○○○판(板)’의 형식으로 나타나는 경우이다.
- 2) ‘개간(開刊)’ ‘신간(新刊)’ ‘중간(重刊)’ ‘간(刊)’과 같이 ‘○○○간(刊)’의 형식으로 나타나는 경우이다.
- 3) 간기 가운데 ‘○○○판(板)’이나 ‘○○○간(刊)’과 같은 형식으로 표현하는 것을 생략한 경우이다.

1) <○○○판(板)>의 형식으로 나타나는 경우

먼저 ‘개판(開板)’ ‘신판(新板)’ ‘장판(藏板)’¹⁴⁾ ‘판(板)’과 같이 ‘○○○

14) <장판(藏版)>이라는 표현은 소설 방각본에는 보이지 않으며, 비소설 방각본에만 보인다. 同治戊辰新鑄武橋贊化堂藏版이라는 간기를 가진 醫崇損益(cf. 중간에 新鑄이라는 표현이 보인다), 己卯新刊書坊藏版이라는 간기를 가진 1책 23장

판(板)’의 형식으로 나타나는 간기를 보이면 다음과 같다.¹⁵⁾

<개판(開板)>

歲庚子孟冬京畿開板 : 임경업전(단 47장본)

<신판(新板)>¹⁶⁾ (배열은 방각소 명칭을 따름)

南谷新板 : 강태공전(하 19장본) 도원결의록(하 17장본) 장자방전(상 21장본/중 18장본/하 20장본)

美洞新板 : 삼국지(일 35장본/삼 20장본)

宋洞新板 : 심청전(단 20장본) 흥부전(단 20장본)

戊午十月治洞新板 : 숙향전(하 23장본¹⁷⁾/하 30장본)

戊午九月治洞新板 : 숙향전(상 33장본)

乙巳十月由洞新板 : 숙향전(단 44장본)

歲在辛亥季冬由洞新板 : 사씨남정기(하 34장본/하 23장본)

由洞新板 : 월왕전(하 19장본)

辛酉二月紅樹洞新板 : 신미록(단 32장본)

안성동문어신판 : 삼국지(삼 20장본) 양풍운전(단 20장본) 적성의전(단 19장본) 제마무전(단 20장본) 조웅전(단 20장본) 춘향전(단 20장본) 홍길동전(단 23장본)

<판(板)>

본 童蒙先習(cf. 중간에 新刊이라는 표현이 보인다) 등이다.

15) () 안의 기록은 해당하는 간기가 나타나는 자료 명칭을 간략히 표시한 것이다.

16) 다음은 비소설 방각본에 나타나는 간기이다. 癸亥季夏銅峴新板(史略:권일), 己巳暮春武橋新板(簡牘精要:1책76장), 武橋新板(唐詩:1책), 武橋新板(喪祭禮抄目:1책), 武橋新板(候謝類輯:1책79장), 美洞新板(十九史略通攷), 由洞新板(簡牘精要:1책), 乙酉季冬由洞新板(史略:권1).

17) 戊午十月治洞新板이라는 간기를 가진 <숙향전(하 30장본)>의 판목을 가져다 사용한 것이다.

紅樹洞板 : 월봉기(일 34장본)¹⁸⁾

2) <○○○간(刊)>의 형식으로 나타나는 경우

다음에는 ‘개간(開刊)’ ‘신간(新刊)’ ‘중간(重刊)’ ‘간(刊)’과 같이 ‘○○○간(刊)’의 형식으로 나타나는 경우에 해당하는 간기를 보이면 다음과 같다.

<개간(開刊)>¹⁹⁾

경성개간 : 설인귀전(단 33장본)²⁰⁾

<신간(新刊)>²¹⁾ (배열은 방각소 명칭을 따름)

甲子季秋銅峴新刊 : 울지경덕전(단 26장본)

甲午仲秋武橋新刊 : 임진록(삼 23장본)

18) 由泉新刊이라는 간기를 가진 <월봉기(이 33장본)>과 함께 간행한 것이다.

19) 비소설 방각본으로 간행한 庚午仲秋二月銅峴開刊이라는 간기를 가진 1책 36장본 五言唐音이 있다.

20) 改刊 또는 改板 형식으로 표기된 간기는 현재 확인할 수 없다는 점, 비소설 방각본으로 간행한 五言唐音의 경우 개간(開刊)이라는 기록이 보인다는 점에서 여기에서의 개간은 改刊보다는 開刊으로 파악하는 것이 타당하다.

21) 다음은 비소설 방각본에 나타나는 간기이다. 甲子孟春武橋新刊(小學諸家集註) 甲辰年孟春開刊武橋新刊(儒胥必知:1책) 庚午季冬武橋新刊(古今歷代標題注解十九史略通攷:권10) 癸亥季秋武橋新刊(古今歷代標題注解十九史略通攷:권3) 癸亥季秋武橋新刊(史略:권3) 癸亥石洞新刊(남훈태평가:1책26장) 癸亥仲秋武橋新刊(剪燈新話句解:2책) 己未石橋新刊(童蒙先習:1책) 大韓光武九年九月日紫岩新刊(草千字:1책17장) 武橋新刊(類合:1책22장) 戊辰經月武橋新刊(明心寶鑑抄) 丙戌十一月治洞新刊(경보인간독:1책24장) 丙辰季冬由洞新刊(史要聚選:5책) 丙辰仲春華山新刊(동몽선습:단) 崇禎百七十七年甲子京城廣通坊新刊(註解千字文:45장본) 辛亥仲冬由洞新刊(通鑑節要:권9) 乙酉孟夏布洞新刊(史略:권2) 乙酉四月治洞新刊(古今歷代標題注釋十九史略通攷) 乙酉仲秋美洞新刊(方藥合編) 乙酉仲秋治洞新刊(方藥合編:1책) 乙丑孟夏武橋新刊(史要聚選:권8) 丁未孟冬由洞新刊(童蒙先習:1책) 丁亥六月治洞新刊(御定奎章全韻:1책) 孝橋新刊(簡禮彙纂:1책47장) 孝橋新刊(直星行年便覽:1책26장).

- 庚戌十一月武橋新刊 : 쌍주기연(단 33장본)
 辛亥元月武橋新刊 : 옥주호연(단 29장본)
 壬子九月美洞新刊 : 장경전(1책 38장)
 己未石橋新刊 : 용문전(단 25장본)
 宋洞新刊 : 금방울전(단 20장본) 백학선전(단 20장본) 쌍주기연(단 22장본) 장화홍련전(단 18장본) 홍길동전(단 21장본)
 治洞新刊 : 홍길동전(단 30장본)
 漁靑橋新刊 : 홍길동전(단 23장본)
 丁未仲春由谷新刊 : 전운치전(단 37장본)
 戊申十一月日由洞新刊 : 삼설기(삼 27장본) 토생전(단 16장본)²²⁾
 由洞新刊 : 금향정기(일 36장본/이 32장본) 진대방전(단 36장본)
 油洞新刊 : 현수문전(하 22장본)
 由泉新刊 : 월봉기(이 33장본)²³⁾
 泉新刊 : 월봉기(하 23장본)²⁴⁾
 紫岩新刊 : 장화홍련전(단 18장본)
 大韓光武九年仲秋蛤洞新刊 : 정수정전(단 16장본)
 庚申二月紅樹洞新刊 : 숙영낭자전(단 18장본)
 己未孟夏紅樹洞新刊 : 삼국지(삼 30장본)
 戊午紅樹洞新刊 : 장풍운전(단 29장본/단 27장본)
 紅樹洞新刊 : 장한절효기(단 29장본)
 丙辰孟冬華山新刊 : 서유기(상 31장본/하 28장본)
 孝橋新刊 : 구운몽(단 32장본)

22) 이는 <삼설기(삼 27장본)>의 판목을 사용하여 간행한 것이기에, <삼설기(삼 27장본)>의 간기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

23) 由泉新刊이라는 간기를 가진 <월봉기(이 33장본)>은 紅樹洞板이라는 간기를 가진 <월봉기(일 34장본)>과 함께 간행한 것이다.

24) 이는 <월봉기(이 33장본)>의 판목을 가져다 사용한 것이기에 由泉新刊의 由를 산략한 것으로 처리한다.

<중간(重刊)>²⁵⁾

壬子七月美洞重刊 : 장경전(단 35장본)

庚寅早秋布洞重刊 : 임장군전(단 20장본)

紅樹洞重刊 : 제마무전(단 32장본) 조용전(단 30장본)

華泉重刊 : 임장군전(단 27장본)

<간(刊)>

간(刊)으로만 간기가 나타나는 소설 방각본은 현재 확인하지 못하였다.²⁶⁾

3) <○○○판(板)>이나 <○○○간(刊)>의 형식을 생략한 경우

끝으로 간기의 표시에 있어서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간기 가운데 ‘○○○판(板)’이나 ‘○○○간(刊)’과 같은 형식으로 표현하는 것을 완전히 생략한 경우로, 이를 보이면 다음과 같다.²⁷⁾

丁亥孟冬 : 임장군전(단 21장본)

丁亥季春布洞 : 구운몽(단 29장본)

庚申二月紅樹洞 : 숙영낭자전(단 28장본)

戊午紅樹洞 : 당태종전(단 26장본)

25) 다음은 비소설 방각본에 나타나는 간기이다. 庚戌仲秋由洞重刊(全韻玉篇:2책) 道光丁未仲春由洞重刊(千字文:1책17장) 戊戌孟秋龍洞重刊(御定奎章全韻) 上之五年 乙丑仲夏京城廣通坊重刊(新刊增補三略直解:상중하1책) 辛亥孟冬由泉重刊(御定奎章全韻) 乙卯孟夏由洞重刊(增補天機大要:2책).

26) 비소설 방각본인 <한양가(1책 25장본)>에 ‘세경신국츄석동간’이라는 간기가 있다고 한다.

27) 목록집 등에 따르면 咸豐庚申(수호지 : 장수미상) 同治甲子武橋(千字文 : 1책)라는 간기도 있다.

4. 간기의 형식과 그 의미

1) <○○○판(板)>이나 <○○○간(刊)>의 보편적 의미

위에서 살펴본 여러 가지 형식 가운데에서 가장 보편적인 것이라고 생각되는 형식은 ‘개판(開板)’→‘신판(新板)’의 형식과 ‘개간(開刊)’→‘신간(新刊)’→‘중간(重刊)’의 형식이라고 하겠다. 먼저 이들 용어에 대한 사전적 풀이를 읊기면 대략 다음과 같다.²⁸⁾

‘개판(開板)’ : 출판물을 처음으로 박아 냄.

‘신판(新板)’ : 새로 만든 책판. 새책. 새판.

‘개간(開刊)’ : 책을 처음으로 간행함.

‘신간(新刊)’ : 새로 간행한 책. 책을 새로 간행함. 신본(新本)

‘중간(重刊)’ : 이미 발행한 책을 거듭 간행함.

이들 용어의 사전적 정의에 따른다면 ‘개판(開板)’과 ‘개간(開刊)’은 <처음으로>라는 의미를 강하게 지니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반면에 ‘신판(新板)’ ‘신간(新刊)’의 경우는 <처음으로>라는 의미와는 달리 <새로(新)>라는 의미를, ‘중간(重刊)’의 경우는 <거듭(重)>이라는 의미를 강하게 지니고 있음을 알 수 있다.²⁹⁾

28) 한글학회, 『우리말큰사전』, 어문각, 1991. 밑줄은 인용자.

29) 그러나 여전히 문제는 남아 있다. 왜냐하면 <새로(新)>라는 의미 속에는 <거듭(重)>이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고 <거듭(重)>이라는 의미 속에는 <새로(新)>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새로>라는 의미로 해석한 <新>의 경우조차도 <처음으로>라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는 여지가 남아 있다. 이러한 문제점들은 결국 출판된 방각소설 전체를 확인함으로써 그 관계를 비교적 명쾌하게 설명할 수 있을 것이라는 낙관적인 전망을 해 보지만, 이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말 그대로 전망에 불과할 뿐이다. 따라서 여기에서의 논의는 분명한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는 점을 밝혀 두며, 현전하는 자료 안에서 이를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하는 시론적 성격이 짙다는 점을 밝혀 둔다.

그러나 실제 간기를 정리하면서 문제가 되는 것은 ‘개판(開板)’과 ‘개간(開刊)’이라는 간기를 가진 자료의 성격과 ‘신판(新板)’ ‘신간(新刊)’이라는 간기를 가진 자료의 성격이다. 이들 성격은 자료를 구체적으로 검토함에 따라 어느 정도 규명될 수 있을 것이다.

2) ‘개간(開刊)’과 ‘개판(開板)’의 개(開) : <처음으로>

‘개간(開刊)’과 ‘개판(開板)’의 경우, 이는 이에 선행하는 인본(印本)이 없고 이에 선행하는 사본(寫本) 또는 원고본(原稿本)만을 상정할 수 있을 때 사용할 수 있는 용어로 보인다. 이를 실제 확인하기로 한다. 경판방각소설의 경우, 이에 해당하는 작품으로는 임경업전과 설인귀전이 있다.

<개간(開刊)>

경성개간 : 설인귀전(단 33장본)

<개판(開板)>

歲庚子孟冬京畿開板 : 임경업전(단 47장본)

물론 현재까지 전하는 자료의 한계로 인하여 나타나는 현상일 수도 있겠지만, 총47장 단권본으로 방각한 ‘歲庚子孟冬京畿開板’이라는 간기를 가진 임경업전보다 앞서 간행한 임경업전은 보이지 않는다. 아울러 총33장 단권본으로 방각한 ‘경성개판’이라는 간기를 가진 설인귀전보다 앞서 간행한 설인귀전 역시 보이지 않는다.³⁰⁾ 임경업전의 경우, 이후에 입장군전으로 제명을 바꾸면서 방각이 지속되고 있다. 華泉重刊(단 27장

30) 권두에 이 간기가 나온다. 물론 설인귀전의 경우 개간이 開刊이 아니라 改刊일 수 있으나 제반 사항을 고려하였을 때, 開刊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인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서 참조할 수 있는 자료가 ‘庚午仲秋二月銅峴開刊’이라는 간기를 가진 五言唐音(1책 36장본)이다.

본), 丁亥孟冬(단 21장본), 庚寅早秋布洞重刊(단 20장본)과 같은 간기를 통하여 ‘開板→新板→重板’이라는 흐름이 아닌 ‘開板→新刊(?)→重刊’이라는 흐름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곧 간(刊)이라는 개념과 판(板)이라는 개념을 명확히 구분하여 사용한다기보다는 비교적 자유롭게 이들 명칭을 사용한다는 것을 보여준다.³¹⁾

설인귀전의 경우, 간기가 없는 30장짜리 단권본이 방각되고 있으며, 이 판목을 수정한 17장짜리 상권본이 있다는 점에서, 이후 여러 차례 방각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³²⁾

이를 통하여 해당하는 서책을 <처음으로> 박아 내거나 간행하는 경우 <개(開)>라는 표현을 사용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 ‘신판(新板)’과 ‘신간(新刊)’의 신(新) : <새로>

‘개판(開板)’이나 ‘개간(開刊)’이라는 간기를 가진 자료가 희소한 것과는 달리, ‘신판(新板)’이나 ‘신간(新刊)’이라는 간기를 가진 자료는 비교적 다양하게 나타난다. 이들 간기를 가진 자료와 함께 그 선후를 논의할 수 있는 인본(印本)에 해당하는 자료를 확인함으로써 이들 ‘신판(新板)’이나 ‘신간(新刊)’이라는 표현이 지니는 의미를 좀더 구체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신판(新板)> (배열은 작품명을 따름)

南谷新板	(강태공전 : 하 19장본)
南谷新板	(도원결의록 : 하 17장본)

31) 이러한 개연성을 잘 보여주는 것으로 월봉기를 들 수 있다. 紅樹洞板이라는 간기를 가진 월봉기 일 34장본과 함께 간행한 것이 由泉新刊이라는 간기를 가진 월봉기 이 33장본이다.

32) 또한 이들 간기가 개간(開刊)이나 개판(開板)으로 나타나는 경우, 방각소의 명칭이 구체적이지 않다는 점도 함께 지적해두어야 할 것 같다. 경기(京畿)나 경성(京城)이라는 방각소의 명칭보다는 이후에 나타나는 방각소의 명칭 --가령 홍수동(紅樹洞)이니 석교(石橋)니 하는 명칭이 더 구체적이라는 점은 분명하다.

歲在辛亥季冬由洞新板	(사씨남정기 : 하 23장분)
歲在辛亥季冬由洞新板	(사씨남정기 : 하 34장분) ³³⁾
美洞新板	(삼국지 : 일 35장분)
안성동문이신판	(삼국지 : 삼 20장분)
己未四月美洞新板	(삼국지 : 3권 1책)
美洞新板	(삼국지 : 삼 20장분)
戊午十月治洞新板	(숙향전 : 하 23장분)
戊午九月治洞新板	(숙향전 : 상 33장분)
乙巳十月由洞新板	(숙향전 : 단 44장분)
戊午十月治洞新板	(숙향전 : 하 30장분)
辛酉二月紅樹洞新板	(신미록 : 단 32장분)
宋洞新板	(심청전 : 단 20장분)
안성동문이신판	(양풍운전 : 단 20장분)
由洞新板	(월왕전 : 하 19장분)
南谷新板	(장자방전 : 상 21장분)
南谷新板	(장자방전 : 하 20장분)
南谷新板	(장자방전 : 중 18장분)
안성동문이신판	(적성의전 : 단 19장분)
안성동문이신판	(체마무전 : 단 20장분)
안성동문이신판	(조웅전 : 단 20장분)
안성동문이신판	(춘향전 : 단 20장분)
안성동문이신판	(홍길동전 : 단 23장분)
宋洞新板	(홍부전 : 단 20장분)

<신간(新刊)> (배열은 작품명을 따름)

33) 사씨남정기의 간기는 歲在辛亥季冬由洞社板으로 기록되어 있으나, 여기에서는 일단 이를 歲在辛亥季冬由洞新板으로 이해하고 논의를 진행하기로 한다.

孝橋新刊	(구운몽 : 단 32장본)
宋洞新刊	(금방울전 : 단 20장본)
由洞新刊	(금향정기 : 일 36장본)
由洞新刊	(금향정기 : 이 32장본)
宋洞新刊	(백학선전 : 단 20장본)
己未孟夏紅樹洞新刊	(삼국지 : 삼 30장본)
咸豐己未紅樹洞新刊	(삼국지 : 하 30장)
宋洞新刊	(삼국지)
戊申十一月日由洞新刊	(삼설기 : 삼 27장본)
丙辰孟冬華山新刊	(서유기 : 하 28장본)
丙辰孟冬華山新刊	(서유기 : 상 31장본)
庚申二月紅樹洞新刊	(숙영낭자전 : 1책 18장)
庚戌十一月武橋新刊	(쌍주기연 : 단 33장본)
宋洞新刊	(쌍주기연 : 단 22장본)
辛亥元月武橋新刊	(옥주호연 : 단 29장본)
己未石橋新刊	(용문전 : 단 25장본)
甲子季秋銅峴新刊	(울지경덕전 : 단 26장본)
泉新刊	(월봉기 : 하 23장본)
由泉新刊	(월봉기 : 이 33장본)
甲午仲秋武橋新刊	(임진록 : 삼 23장본)
壬子九月美洞新刊	(장경전 : 1책 38장)
戊午紅樹洞新刊	(장풍운전 : 단 29장본)
戊午紅樹洞新刊	(장풍운전 : 단 27장본)
紅樹洞新刊	(장한절효기 : 단 29장본)
宋洞新刊	(장화홍련전 : 단 18장본)
紫岩新刊	(장화홍련전 : 단 18장본)
丁未仲春由谷新刊	(전운치전 : 단 37장본)

大韓光武九年仲秋蛤洞新刊	(정수정전 : 단 16장본)
紅樹洞新刊	(조웅전 : 1책 20장)
由洞新刊	(진대방전 : 1책 18장)
由洞新刊	(진대방전 : 단 36장본)
戊申十一月日由洞新刊	(토생전 : 단 16장본)
油洞新刊	(현수문전 : 하 22장본)
漁靑橋新刊	(홍길동전 : 단 23장본)
治洞新刊	(홍길동전 : 단 30장본)
宋洞新刊	(홍길동전 : 단 21장본)

이들 가운데 현전하는 판본이 유일본이어서, ‘신판(新板)’이나 ‘신간(新刊)’에 나타나는 신(新)의 의미를 <새로>라고 규정하기 어려운 것은 작품별 규명이 끝난 뒤에 일괄하여 논의하기로 한다.

(1) 구운몽의 경우 : 孝橋新刊이라는 간기를 가진 구운몽(단 32장본)과 간기가 없는 구운몽(단 32장본)이 있으며, 이들 사이의 관계는 번각으로 보이며, 간기가 없는 32장본을 번각한 것이 孝橋新刊이라는 간기를 가진 32장본일 것이라 추정할 바 있다. 따라서 孝橋新刊이라는 간기를 가진 판본에 선행하는 판본이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후 孝橋新刊이라는 간기를 가진 판목을 활용하면서 ‘丁亥季春布洞’이라는 간기로 간행한 29장본이 있다. 따라서 이때의 신(新)을 <새로>라는 의미로 해석함에 무리가 없다.

(2) 금방울전의 경우 : 宋洞新刊이라는 간기를 가진 금방울전(단 20장본)은 이에 선행하는 두 종류의 28장본 금방울전이 있으며, 번각한 28장본을 모본으로 하여 축약한 宋洞新刊이라는 간기를 가진 판본을 방각한 것을 알 수 있다. 아울러 16장본은 20장본을 모본으로 하여 축약한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때의 신(新) 역시 <새로>라는 의미로 해석함에 무리가 없다.

(3) 백학선전의 경우 : 宋洞新刊이라는 간기를 가진 백학선전(단 20장본)은 현전하는 24장본을 모본으로 하여 인행한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현전하는 24장본에 선행하는 판본 곧 <24장모본*>이 존재할 개연성을 이미 검토한 바 있기에, 신(新) 역시 <새로>라는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4) 삼국지의 경우 : 美洞新板이라는 간기를 가진 삼국지(일 35장본), 己未孟夏紅樹洞新刊이라는 간기를 가진 삼국지(삼 30장본), 안성동문이신판이라는 간기를 가진 삼국지(삼 20장본), 美洞新板이라는 간기를 가진 삼국지(삼 20장본)가 있다. 美洞新板이라는 간기를 가진 삼국지(일 35장본)는 삼국지(이 35장본)와 함께 간행된 것으로 보이며 이에 선행하는 판본은 현재 확인되지 아니한다. 삼국지 권지삼의 경우, 己未孟夏紅樹洞新刊이라는 간기를 가진 삼국지(삼 30장본)에 선행하는 판본은 보이지 않으나, 권지일 권지이에 이어서 간행하는 것이기에 신간이라는 표현이 가능하지 않을까 추정해본다. 반면에 안성동문이신판이라는 간기와 미동신판이라는 간기를 가진 삼국지 권지삼은 이에 선행하는 삼국지 권지삼 30장본이 있고, 또한 간기가 없는 삼국지 권지삼 20장본을 모본으로 삼아서 번각과 축약에 의한 개각(改刻)이 이루어진 것이 안성판 삼국지 권지삼이고, 안성판 삼국지 권지삼을 번각한 것이 미동신판이라는 간기를 가진 삼국지 권지삼 20장본임을 알 수 있다. 이처럼 번각을 하면서도 신판(안성동문이신판)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번각과 동시에 축약이 이루어진 경우에도 신판(美洞新板)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는 점에서 신판이나 신간의 개념이 <처음으로>가 아닌 <새로>(新)라는 쪽에 치우쳐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본다면 美洞新板이라는 간기를 가

진 삼국지(일 35장본)가 미동이라는 방각소에서 간행되었다는 점에서 이에 선행하는 판본이 존재하였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다만 이 선행하는 판본이 어느 것인지 --혹 한문본 삼국지인지 아니면 한글본 삼국지인지 불명확하다-- 알 수 없으나 여기에서의 신간이 <처음으로> 간행하는 것이 아님은 분명하게 알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이미 제주 지역에서 삼국지연의를 간행한 바 있다는 점³⁴⁾을 고려한다면 혹 한글본 방각본의 간행이 아님에도 이에 선행하는 판본 간행이 있을 경우, 이를 개간(開刊) 또는 개판(開板)으로 인식하고서 신간 또는 신판이라는 용어를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5) 삼설기의 경우 : 戊申十一月日由洞新刊이라는 간기를 가진 삼설기(삼 27장본)는 동일한 판목을 부분 수정하여 사용한 戊申十一月日由洞新刊이라는 간기를 가진 토생전(단 16장본)과 함께 검토하여야 한다. 방각본으로 간행한 삼설기와 토생전 사이의 관계는 이미 검토된 바 있고, 판본에 나타나는 간기는 동일한 판목을 사용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임을 상세히 검토한 바 있다.³⁵⁾ 戊申十一月日由洞新刊이라는 간기를 가진 삼설기(삼 27장본)의 모본이 되거나 이에 선행하는 판본은 현재 보이지 않는다. 다만 권지삼의 간행에 앞서 권지일과 권지이가 간행되었다는 사실은 확인할 수 있다. 권지일부터 권지삼까지가 동시에 기획되고 나서 간행되었다고 한다면 이에 선행하는 판본을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그러나 권지일과 권지이가 먼저 간행되고 난 뒤에, 일정한 시간이 경과하고 나서 권지삼이 추가로 기획되어 간행되었다고 한다면, 권지삼을 간행하면서 이를 신간으로 표시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본다면

34) 한문본 삼국지의 간행은 이미 지적된 바 있다. 류탁일, 『삼국지통속연의의 전래 판본과 시기』, 『백사이우성선생정년퇴직기념 국어국문학논총』, 여강출판사, 1990, 761-773쪽.

35) 이창현, 『단편소설집 삼설기의 판본에 대한 일 고찰』, 『관악어문연구』 20, 1995, 195-214쪽.

간기가 없는 권지일이나 권지이의 간행이 개간이라는 의미를 지닐 수 있다는 것이다.³⁶⁾

특히 삼설기의 경우 판심제가 ‘삼설괴상’과 ‘삼설괴하’의 형태로 나타난다는 것은 이것이 상하권을 엄두에 두고 삼설기가 편찬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점이다. 이렇게 상하권으로 삼설기의 간행이 있고 난 뒤에 <새로> 간행하는 책이라는 의미에서 신간(新刊)이라는 의미가 사용될 수 있다고 할 수는 없는가? 이때에는 신간이라는 의미가 앞서 검토한 개간 또는 개판이라는 의미를 부분적으로 포함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6) 숙영낭자전의 경우 : 庚申二月紅樹洞新刊이라는 간기를 가진 숙영낭자전(단 28장본)에 선행하는 판본은 현재 확인할 수 없으며, 단지 여기의 간기를 산략한 28장본의 간행은 확인할 수 있다.³⁷⁾ 이 28장본을 모본으로 삼아 20장본의 간행이 있었고, 20장본을 모본으로 삼아 번각과 축약에 의한 개각이 이루어진 16장본의 간행이 있었다. 따라서 이때의 신(新)을 <새로>라는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나 <처음으로>라는 의미를 지닐 개연성도 여전히 존재한다.

36) 실제 한 달의 간격을 두고 간행한 숙향전을 참조할 수 있다. 숙향전 상권인 33장본은 戊午九月治洞新板라는 간기를 통하여 9월에 간행하였고, 이로부터 한 달 뒤인 10월에 하권인 30장본을 간행하면서 戊午十月治洞新板라는 간기를 통하여 이를 신판으로 지칭하고 있다. 이때 상권과 하권을 동시에 기획하여 한 달이라는 시차를 두고 간행하였기에 이들 모두는 신판이라는 표현이 가능하다 하겠다.

37) 모리스 쿠랑의 한국서지에서 언급한 것이 庚申二月紅樹洞新刊이라는 간기를 가진 동양어학교소장본으로 보인다. 임성래, 『동양어문화대학 도서관 소장 한국 고문헌 목록』, 『열상고전연구』 7, 1994, 326쪽; 모리스 쿠랑(이희재 번역), 『한국서지』, 일조각, 1994, 293쪽, 823번조 참조. 물론 28장본 무간기본과 28장본 간기본의 대조가 필요한 부분이나, 아직 간기가 있는 28장본을 구득하지 못하였기에 이에 대한 논의는 추후의 기회로 미루기로 한다. 다만 이들은 서로 번각 관계에 놓인 판본일 개연성이 높다.

(7) 속향전의 경우 : 戊午十月治洞新板이라는 간기를 가진 속향전(하 23장본)은 戊午十月治洞新板이라는 간기를 가진 속향전(하 30장본)의 판목을 수정하여 사용한 것이기에 여기에서의 신판이라는 표현은 큰 의미를 지니지 못한다. 논의의 중심은 戊午九月治洞新板이라는 간기를 가진 속향전(상 33장본)과 戊午十月治洞新板이라는 간기를 가진 속향전(하 30장본)이다. 간기에 따르면 상권과 하권은 한 달의 시간적 간격을 두고 간행되었다. 앞서 언급한 삼설기의 경우와 달리, 이는 상권과 하권의 간행을 기획하고 방각 작업이 이루어진 것이기에 상권에도 신판이라는 표현이 가능할 것이다. 그러나 여기에서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은 乙巳十月由洞新板이라는 간기를 가진 속향전(단 44장본)의 존재이다. 1845년인 乙巳十月由洞新板이라는 간기를 가진 속향전(단 44장본)이 1858년인 戊午九月治洞新板과 戊午十月治洞新板이라는 간기를 가진 속향전보다 선행하는 것이라면 44장본으로 된 단권본 속향전을 상권과 하권 곧 양권본의 속향전으로 부연하면서 간행하였다는 설명이 가능하다. 이때 상권과 하권에도 <새로>라는 의미를 지닌 신판이라는 표현을 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³⁸⁾ 어찌되었건 신판이라는 표현은 이에 선행하는 판본이 있기에 사용할 수 있는 <새로>라는 의미가 강한 용어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단권본이 선행하건 혹은 양권본이 선행하건 이들 모두 신판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기에 이에 선행하는 판본이 존재함을 암시한다고 할 수 있다.³⁹⁾

38) 이와는 반대로 戊午九月治洞新板과 戊午十月治洞新板이라는 간기를 가진 상하권 속향전을 모본으로 하여 1845년에 총44장으로 구성된 乙巳十月由洞新板이라는 간기를 가진 단권본 속향전을 간행하였다면 앞서의 무오는 1858년이 아니라 1798년이 된다. 이에 대한 상세한 검토는 별고를 기약하기로 한다.

39) 이는 속향전을 방각본으로 출판하는 일이, 지금 전하고 있는 판본보다 앞서서 이루어졌을 것이라는 추정을 가능하게 한다. 그리고 이는 곧 1794년의 기록인 상서기문에서 언급하고 있는 조선소설이라는 항목 아래 나열되고 있는 소설 중 상당수가 방각본으로 이미 간행되었다는 추정을 가능하게 한다. 가령 임장균충렬전으로 표현된 임경업전의 경우 1780년에 이미 방각본으로 간행되었다는 점,

(8) 심청전의 경우 : 宋洞新刊이라는 간기를 가진 심청전(단 20장본)은, 여타의 심청전(26장본과 두 종의 24장본)이 문장체소설 심청전의 구성을 갖는 것과 달리, 당대에 유행하던 판소리 심청가의 사설을 토대로 하여 방각한 판소리사설 심청전이라는 성격을 갖고 있다. 그리고 이는 안성판으로 지칭되는 심청전(단 21장본)으로 개각(改刻)한 것과 같은 계열의 작품이다. 20장본에 선행하는 판본이 있다는 점에서 신간(新刊)이라는 의미는 <처음으로>보다는 <새로>라는 의미를 지니는 것으로 보이나, 한편으로는 문장체소설 심청전이 아닌 판소리사설 심청전이라는 측면에서 개간(開刊)의 의미 곧 <처음으로>라는 의미를 부분적으로 함유하고 있다는 것을 온전히 부정할 수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9) 쌍주기연의 경우 : 庚戌十一月武橋新刊이라는 간기를 가진 쌍주기연(단 33장본)에 선행하는 판본은 현재 보이지 않으며, 이 판목을 사용한 쌍주기연(단 32장본)이 있다. 宋洞新刊이라는 간기를 가진 쌍주기연(단 22장본)은 33장본을 저본으로 삼아 축약하여 개각(改刻)한 것이기에, 宋洞新刊에서의 신(新)은 <새로>라는 의미를 지닌다. 반면에 武橋新刊에서의 신(新)은 <새로>라는 의미뿐만 아니라 <처음으로>라는 의미를 동시에 지닌 것으로 보이나, 이에 선행하는 판본 여부에 따라 그 의미는 달리 해석될 수 있다.

(10) 양풍(운)전의 경우 : 안성동문이신판이라는 간기를 가진 양풍운전(단 20장본)을 번각한 양풍전(단 20장본)이 있으며, 안성동문이신판이라는 간기를 가진 양풍운전(단 20장본)에 선행하는 판본으로 24장본⁴⁰⁾

여기에서 추정대로 속향전 역시 간행되었을 개연성이 높다는 점, 그리고 현전하는 소대성전 중 무간기본이 이 시기에 이미 방각본으로 간행되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 등에서 이러한 추정이 가능하다. 이에 대한 상세한 검토 또한 별고를 기약하기로 한다.

40) 24장본보다는 이에 선행하는, 총29장으로 구성된 24장모본일 가능성이 높다. 다

이 있기에, 여기에서 언급하고 있는 신판에서의 신(新)은 <새로>라는 의미를 지니는 것이다.

(11) 용문전의 경우 : 己未石橋新刊이라는 간기를 가진 용문전(단 25장본)에 선행하는 판본으로 36장본을 확인할 수 있으며, 36장본에 선행하는 판본의 존재를 추정할 수 있다. 이 36장본을 축약한 것이 또다른 25장본이며, 이 25장본을 번각한 것이 己未石橋新刊이라는 간기를 가진 용문전(단 25장본)에 해당한다. 따라서 여기에서 언급하고 있는 신간(新刊)에서의 신(新)은 <새로>라는 의미를 지닌다.

(12) 임진록의 경우 : ‘甲午仲秋 武橋新刊 옥천이서당’이라는 긴 간기를 가진 임진록(삼 23장본)의 경우, 그 선후 관계가 명확하지 아니하다. 다만 23장본의 경우, 간기가 있는 것과 간기가 없는 것이 현존하고 있으며 이는 모두 동일한 판목을 사용한 것을 알 수 있다. 이에 선행하는 판본으로 훼손이 심한 <일30장본>계통을 설정할 수 있다⁴¹⁾는 점에서 여기에서 언급한 신간이라는 표현 역시 <새로>라는 의미로 읽힌다.

(13) 장경전의 경우 : 壬子九月美洞新刊이라는 간기를 가진 장경전(1책 38장)에 대한 언급은 모리스 쿠랑의 한국서지에만 나타나고 있어서 현전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하다. 壬子七月美洞重刊이라는 간기가 있는 35장본에 대해서는 뒤의 <중간(重刊)>의 해당 항목에서 재검토하기로 한다.

(14) 장풍운전의 경우 : 戊午紅樹洞新刊이라는 간기를 가진 장풍운전 단권본에는 29장본과 27장본이 있다. 침자리 형태를 보여주는 <31장모

만 24장모본인 29장본을 현재 확인할 수 없을 뿐이다.

41) 이창헌, 『경관방각소설판본연구』, 태학사, 2000, 258-265쪽.

본*〉의 설정이 가능하고 이를 계승한 31장분을 염두에 둔다면, 29장본의 간기에 나타나는 신간 역시 <새로>라는 의미를 지닌다.

(15) 장화홍련전의 경우 : 紫岩新刊이라는 간기를 가진 장화홍련전(단 18장본)과 宋洞新刊이라는 간기를 가진 장화홍련전(단 18장본)이 있으나, 이 둘 사이는 서로 번각 관계에 놓인 것으로 보인다. 이들 판본에 선행하는 판본으로 28장본이 있기에 여기에서 사용한 신간이라는 의미 역시 <새로>라는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16) 적성의전의 경우 : 안성동문이신판이라는 간기를 가진 적성의전(단 19장본)은 23장본의 행문을 근거로 판식을 바꾸어 개각(改刻)한 판본으로 보이기에, 여기에서 언급한 신판 역시 <새로>라는 의미를 지닌다.

(17) 전운치전의 경우 : 丁未仲春由谷新刊이라는 간기를 가진 전운치전(단 37장본)에 선행하는 판본은 현재 보이지 아니한다. 여기에 사용한 판목을 수정하여 22장본을 간행하였고, 이를 근거로 개각한 17장본만이 확인된다. 따라서 여기에서 사용한 신간이라는 의미를 <새로>라는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나, <처음으로>라는 의미 또한 동시에 지닐 수 있다.

(18) 정수정전의 경우 : 大韓光武九年仲秋蛤洞新刊이라는 간기를 가진 정수정전(단 16장본)에 선행하는 판본으로 17장본을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16장본과 번각 관계에 있는 또다른 16장본 역시 존재한다. 따라서 여기에서 언급한 신간은 역시 <새로>라는 의미로 해석한다.

(19) 제마무전의 경우 : 안성동문이신판이라는 간기를 가진 제마무전

(단 20장본)의 경우, 제마무전 부분이 총 16장이며 회심곡 부분이 총4장이다. 제마무전 부분만을 본다면 이에 선행하는 32장본 곧 제마무전 부분이 총26장인 판본을 선행하는 판본으로 볼 수 있기에 신판 역시 <새로>라는 의미로 해석한다.

(20) 조웅전의 경우 : 안성동문이신판이라는 간기를 가진 조웅전(단 20장본) 이외에 간기가 없는 20장본 조웅전이 두 종 있다. 이들 20장본은 모두 30장본을 저본으로 하거나 또는 30장본에 선행하는 30장모본*을 저본으로 생성된 것이다. 30장본의 경우, 모두 동일한 판목을 사용하고 있고, 그 중에 紅樹洞重刊이라는 간기를 갖는 30장본이 존재한다는 점에서, 이들 20장본 조웅전에 나오는 신간이라는 간기의 의미는 <새로>라는 의미로 해석한다. 30장본이 중간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기에 이에 선행하는 판본인 <30장모본*>의 설정이 가능하고 그것이 초간본 또는 개간본(開刊本)일 수 있다는 점에서 신간의 의미가 <새로>라는 것이 더욱 명확하게 드러난다.⁴²⁾

(21) 진대방전의 경우 : 진대방전은 내훈제사와 내훈을 포함하여 전체가 몇장인가 하는 표현이 가능하다. 내훈제사와 내훈을 제외한 진대방전의 경우, 18장본과 16장본 두 종류의 진대방전이 현전하고 있다. 由洞新刊이라는 간기를 가진 진대방전(단 36장본)의 간기는 사실 진대방전의 끝이 아니라 내훈의 끝에서 나타난다. 이 자료가 36장본이기에 진대방전의 경우 由洞新刊이라는 간기를 가진 36장본이 가장 선행하는 판본으로 보이며, 이에 선행하는 판본은 현재 확인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여기에서의 신간을 <처음으로>라는 의미로 해석할지 <새로>라는 의미로 해

42) 여기서 더 고려할 사항은 조웅전 30장본을 판각하면서 중간(重刊)이라는 표현이 사용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곧 <처음으로> 새기고(開刊) 나서, <거듭> 새기고(重刊), 이어서 <새로> 새기는(新刊) 것이 가능하다는 것 곧 ‘開刊→重刊→新刊’이라는 표지의 변화가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석할지 그 판단을 유보할 수밖에 없다.

(22) 춘향전의 경우 : 현전하는 춘향전 중 간기가 밝혀져 있는 것은 안성동문이신판이라는 간기를 가진 춘향전(단 20장본)뿐이다. 20장본 춘향전은 이에 선행하는 23장본을 토대로 새롭게 개각한 판본이라는 점에서, 여기에서 언급하고 있는 신간이라는 의미 역시 <새로>라는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23) 현수문전의 경우 : 油洞新刊이라는 간기를 가진 현수문전(하 22장본)은 현재 상중하 삼권본의 형식을 갖추고 있으나, 이는 상하 양권본의 형식을 갖춘 판본의 판목을 재활용하여 구성한 것이라는 점에서 상하 양권본 중 하권본의 간기로 보아야 할 것이다. 이 양권본 또는 삼권본 현수문전을 인행하기 위해 제작된 그리고 수정된 판목에 선행하는 판본을 찾아볼 수 없다는 점에서, 신간이라는 의미를 <새로>보다는 <처음으로>로 해석할 개연성이 높다 하겠다.⁴³⁾

(24) 홍길동전의 경우 : 현전하는 홍길동전을 근거로 24장본과 30장본에 선행하는 판본을 설정하는 것이 가능하고, 여기에서부터 24장본과 30장본이 비롯되었을 것이라는 판단을 이미 내린 바 있다. 이 점을 고려한다면 治洞新刊이라는 간기를 가진 홍길동전(단 30장본)의 간기 역시 <새로>라는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며, 30장본을 모본으로 하여 안성동문이신판이라는 간기를 가진 홍길동전(단 23장본)과 漁靑橋新刊이라는 간기를 가진 홍길동전(단 23장본)이 성립한 것이라는 점에서 여기에 나타나는 신간 역시 30장본에 나타나는 신간과 동일한 의미 곧

43) 특이한 점은 여기에 나타나는 油洞이라는 표기와 다른 곳에 나온 由洞이라는 표기 사이에 차이가 있다는 점이다. 현재까지는 이를 일단 동일한 방각소로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새로>라는 의미로 해석해야 할 것이다. 또한 宋洞新刊이라는 간기를 가진 홍길동전(단 21장본) 역시 30장본에서 비롯되었다는 점에서 여기에 나타나는 신간이라는 의미 또한 앞서 간기에 나타나는 신간과 동일한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25) 홍부전의 경우 : 宋洞新板이라는 간기를 가진 홍부전(단 20장본)은 이에 선행하는 판본인 무간기본 홍부전 25장본을 모본으로 삼아 축약하여⁴⁴⁾ 개각한 것이기에 여기에 나타나는 신판이라는 의미 역시 <새로>라는 의미로 제한하여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26) 유일본에 나타나는 간기의 경우 :

먼저 강태공전의 경우, 南谷新板이라는 간기를 가진 강태공전은 상 20장본 하 19장본으로 하권에만 간기가 있다. 이에 앞서 간행한 판본이나 이후에 간행한 판본은 보이지 않는다.

由洞新刊이라는 간기를 가진 금향정기는 일 36장본과 이 32장본으로 간행하였으며, 이에 선행하는 판본은 현재 보이지 않는다. 이들 판목을 수정하여 3권으로 된 금향정기를 간행한 것으로 보인다.

도원결의록의 경우에는 南谷新板이라는 간기를 가진 하 17장본만이 남아 있으며, 권수제 및 권차표시가 ‘도원결의록 별명은 삼국지 下’로 기록(‘별명은 삼국지’ 부분이 헛자로 되어 있다)된 것에서 삼국지의 간행과 동일한 인식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이전에 간행한 삼국지가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할 때 선행하는 판본이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사씨남정기의 경우, 간기를 신판(新板)으로 읽기보다는 사판(社板)으로 읽는 것이 타당하지만 유동의 경우⁴⁵⁾ 대부분 이를 신판 또는 신간으

44) 물론 부분적인 부연이 나타나고 있으나 축약의 정도에 비하면 매우 미미하다.

45) 由洞新刊의 형식은 삼설기(삼 27장본) 토생전(단 16장본) 금향정기(일 36장본/이 32장본) 진대방전(단 36장본)에 나타나고 있으며, 由洞新板의 형식은 속향전(단 44장본) 월왕전(하 19장본)에 나타나고 있다.

로 새기고 있기에 서체의 차이에서 오는 경우로 이해하고 이를 사판(社板)이 아닌 신판(新板)으로 다루기로 한다. 역시 이에 선행하는 판본을 찾을 수 없다.

서유기는 丙辰孟冬華山新刊이라는 간기를 가진 상 31장본과 하 28장본이 있으나 이에 선행하는 판본을 찾을 수 없으며, 이에 후행하는 판본 역시 찾을 수 없다.

신미록은 辛酉二月紅樹洞新板이라는 간기를 가진 단 32장본으로, 1811년의 홍경래 관련 내용을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여기에서의 신유년은 1861년이다.

옥주호연은 辛亥元月武橋新刊이라는 간기를 가진 단 29장본이 있으며, 울지경덕전은 甲子季秋銅峴新刊이라는 간기를 가진 단 26장본만이 현전하고 있다.

월봉기는 紅樹洞板이라는 간기를 가진 일 34장본과 由泉新刊이라는 간기를 가진 이 33장본으로 하나의 작품을 구성하고 있다. 泉新刊이라는 간기를 가진 하 23장본은 위의 작품 인행에 사용한 판목을 필요에 따라 수정하여 분권 방식을 달리하여 간행한 것이기에 신간이라는 것이 특별한 의미를 지니지는 아니한다.

월왕전의 경우, 由洞新板이라는 간기를 가진 월왕전(하 19장본)은 상 20장본 중 24장본과 함께 구성된 3권본 63장본이다. 간기가 의미하는 것은 상하 양권권으로 간행할 때의 상황을 보여주는 것으로, 상하권에 선행하는 월왕전 역시 보이지 아니한다.

장자방전은 南谷新板이라는 간기를 상 21장본 중 18장본 하 20장본 말미에 각각 새기고 있다. 이에 선행하는 판본이 없기에 현전하는 것이 유일한 판본으로 보인다. 다만 이후에 구활자본으로 간행한 것은 확인이 가능하다.

장한절효기는 紅樹洞新刊이라는 간기를 가진 단 29장본이 유일하다. 여기에서 검토한 강태공전 이하 장한절효기에서 드러나는 신(新)의

의미는 <처음으로>일 수도 있고 <새로>일 수도 있다. 다만 새로운 자료의 확인에 따라 이것이 어느 쪽에 해당하는 것인지 분명히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지금까지 신간(新刊) 또는 신판(新板)이라는 표현이 나타나는 간기를 중심으로 이들 판본이 구체적으로 어느 단계에 속하는지를 작품별로 검토하여 보았다. 현전하는 자료의 한계로 인하여 분명하게 단정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으나, 주어진 자료들을 중심으로 이들 의미를 확인하여 보면 대부분의 경우, 신(新)의 의미를 <처음으로>보다는 <새로>라는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 일반적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⁴⁶⁾ 물론 이러한 해석은 분명 제한적이라는 점에서 이 논의가 여전히 시론적인 성격에 머물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3) ‘중간(重刊)’의 경우

‘중간(重刊)’이라는 표현과 달리, ‘중판(重板)’이라는 표현은 현재까지 확인하지 못하였다. 중간(重刊)이라는 간기가 나오는 판본을 검토하기로 한다.⁴⁷⁾

(1) 입장군전의 경우 : 華泉重刊이라는 간기를 지닌 입장군전(단 27장본)과 庚寅早秋布洞重刊이라는 간기를 지닌 입장군전(단 20장본)을 확인할 수 있다. 이에 선행하는 판본으로 총47장으로 된 단권본 임경업전(歲

46) 위의 논의에서 신(新)의 의미는 빈번히 <처음으로>라는 의미로 해석되고 있지만, <새로>라는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 일반적인 것으로 보인다. <처음으로>라는 의미로 해석한 경우는 이에 선행하는 새로운 자료의 확인을 통하여 비로소 <새로>라는 의미로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이다.

47) 비소설 방각본으로 중간(重刊)이라는 간기가 나타나는 것을 정리하면 대략 다음과 같다. 庚戌仲秋由洞重刊(全韻玉篇:2책), 道光丁未仲春由洞重刊(千字文:1책17장), 戊戌孟秋龍洞重刊(御定奎章全韻), 上之五年乙丑仲夏京城廣通坊重刊(新刊增補三略直解:상중하1책), 辛亥孟冬由泉重刊(御定奎章全韻), 乙卯孟夏由洞重刊(增補天機大要:2책).

庚子孟冬京畿開板)이 있었으며, 이에 후행하는 판본으로 丁亥孟冬이라는 간기를 가진 임장군전⁴⁸⁾이 있다. 따라서 여기에서 사용하는 중간(重刊)이라는 어휘는 <거듭>이라는 의미로 해석하는 데 무리가 없다.

(2) 장경전의 경우 : 壬子七月美洞重刊이라는 간기를 지닌 현전 장경전(단 35장본)은 보각판으로 보이며, 여기에 나타나는 간기는 보각판인 35장본의 간기라기보다는 보각이 이루어지기 이전의 판목에 남아있었던 간기로 보인다. 壬子九月美洞新刊이라는 간기를 가진 38장본이 있다는 기록⁴⁹⁾이 있으나 아직까지 실물을 확인하지 못하였기에 더 이상의 논의는 어렵다. 다만 여기에서 언급하고 있는 임자년 9월 신간(新刊)과 임자년 7월 중간(重刊) 사이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여전히 남아있다 하겠다. 일단 여기에 사용한 중간(重刊)의 의미가 <거듭>하여 간행하다는 의미인 것만은 분명하다.

(3) 제마무전의 경우 : 紅樹洞重刊이라는 간기를 지닌 제마무전(단 32장본)의 경우, 이에 선행하는 판본을 확인할 수 없다. 그럼에도 이에 선행하는 판본을 추정하려는 까닭은 뒤에 첨부된 회심곡 때문이다. 32장본에 첨부된 회심곡은 독립된 장차를 취하지 아니하고 제마무전에 연속하여 26장 후엽부터 32장 전엽까지 총 6장으로 장차를 구성하고 있으나, 간기가 없는 23장본 제마무전은 독립된 장차로 총 7장의 회심곡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회심곡을 독립된 장차로 새기는 것이 일반적인 판목의 구성 방식이라고 하였을 때, 연속되는 장차를 가진 32장본 제마무전은 매우 예외적인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선행하는 판본을 상정하는 것이 더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런 점에 비추어 본다면 여기에서의

48) 박성칠서점 판권지가 첨부된 것도 있다. 이정원, 『안성판 방각본 출판 현황』, 『어문연구』 127(33권 3호), 2005, 174쪽 참조.

49) 모리스 쿠랑의 한국서지에 보인다. 모리스 쿠랑(이희재 번역), 『한국서지』, 일조각, 1994, 278쪽, 795번호.

중간(重刊) 역시 그 의미를 <거듭>하여 간행하다는 것으로 해석한다.

(4) 조웅전의 경우 : 紅樹洞重刊이라는 간기를 지닌 조웅전(단 30장본)의 경우, 권수제가 ‘도웅전단’으로 나타나는 경우와 ‘도웅전다’로 받침 ㄴ이 훼손된 형태로 나타나는 것이 있다.⁵⁰⁾ 현재까지 확인된 자료에 의하면 이에 선행하는 판본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30장본에 중간(重刊)이라는 표현이 나타나고 있으며, 또한 이를 한남서림에서 계속 간행하고 있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다음과 같은 판단이 가능하다. 30장본 조웅전에 선행하는 판본이 있고, 이어서 이에 <거듭>하여 간행하는 30장본은 중간(重刊)이라는 간기로 표기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겠는가 하는 추정을 하여본다.

5. 결론, 그리고 남는 문제들

지금까지 경판방각소설 중 유간기본(有刊記本)을 중심으로 간기에 나타나는 ‘개판(開板)’ ‘개간(開刊)’ ‘신판(新板)’ ‘신간(新刊)’ ‘중간(重刊)’ 등의 표지가 지니는 의미를 집중적으로 살펴보았다. 이러한 논의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잠정적 결론에 도달할 수 있었다.

먼저 ‘개판(開板)’이나 ‘개간(開刊)’이라는 표지가 간기 중에 보이면 이것이 해당 작품으로서는 <처음으로> 간행한 판본이라는 것이다.

둘째, ‘신판(新板)’이나 ‘신간(新刊)’이라는 표지가 간기 중에 보이면 이것이 해당 작품으로서는 처음으로 간행한 판본이 아니라 <새로> 간행한 판본이라는 것이다. 물론 논의를 진행하는 과정에서도 자주 언급한 바와 같이, 현전하는 자료의 한계로 인하여 나타나는 현상일 수도 있지

50) 조웅전 30장본은 모두 3종류가 있으며 이들 사이의 관계는 이창현, 『경판방각소설 조웅전 판본 연구』, 『고소설연구』 7, 1999, 178-186쪽에서 상세히 검토한 바 있다.

만. 이것이 때로는 <처음으로>라는 의미를 지닐 수 있다는 개연성을 결코 부정할 수 없다. 그러나 이러한 예외적 현상이 자주 나타날 수 있음에도, ‘신판(新板)’이나 ‘신간(新刊)’이라는 표지를 <처음으로>로 이해하는 것보다는 <새로>로 이해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셋째, ‘중간(重刊)’이라는 표지가 간기 중에 보이면 이것은 결코 <처음으로>라는 의미로 읽을 수 없으며, <거듭>이라는 의미로 읽게 됨에 따라 이에 선행하는 판본을 설정하는 것이 지극히 당연하다는 것이다.

넷째, 박성칠서점의 판권지를 통하여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판(板)이라는 개념의 사용은 자신만의 출판사 혹은 방각소에만 국한시켜 판수(板數)를 계산하여 사용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점이다. 이는 앞으로 활자본 소설의 판권지를 해석할 때에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을 것인지 논의의 확장이 필요하다.

다섯째, 판(板)과 간(刊)이 사용된 용례를 고려할 때, 이들 사이에는 특별한 구별이 없으며, 비교적 자유롭게 이들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중간(重刊)이라는 용례가 있음에도 중판(重板)이라는 용례가 보이지 않는다는 점 또한 함께 지적해두어야 할 것이다.

여기에서 이루어진 이같은 잠정적 결론은 새로운 자료의 발굴과 함께 재검토되어야 하며, 활자본 소설로 논의가 확대되면서 또한 재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주제어 : 판(板), 간(刊), 개판(開板), 개간(開刊), 신판(新板), 신간(新刊),
중간(重刊)

참고문헌

- 권순궁, 『활자본 고소설의 편폭과 지향』, 보고사, 2000.
- 류탁일, 『완판방각소설의 문헌학적 연구』, 학문사, 1981.
- 류탁일, 『한국문헌학연구』, 1990(재판).
- 류탁일, 『삼국지통속연의의 전래판본과 시기』, 『백사이우성선생정년퇴직 기념 국어국문학논총』, 여강출판사, 1990, 761-773쪽.
- 이능우, 『고소설연구』, 이우출판사, 1980.
- 이상택 외, 『한국고전소설의 세계』, 돌베개, 2005.
- 이정원, 『안성판 방각본의 출판 현황』, 『19세기말~20세기초 안성지역의 출판문화 연구(I)』,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안성문화원, 2005. 6.3. 발표요지, 1-16쪽.
- 이정원, 『安城板 坊刻本 출판 현황』, 『어문연구』 127(33권 3호), 한국어 문교육연구회, 2005, 161-184쪽.
- 이주영, 『구활자본 고전소설 연구』, 월인, 1998.
- 이창헌, 『단편소설집 삼설기의 판본에 대한 일 고찰』, 『관악어문연구』 20, 1995, 195-214쪽.
- 이창헌, 『경판방각소설 조웅전 판본 연구』, 『고소설연구』 7, 1999, 175-204쪽.
- 이창헌, 『안성지역의 소설 방각활동 연구』, 『한국문화』 24, 서울대한국문화연구소, 1999, 99-140쪽.
- 이창헌, 『경판방각소설판본연구』, 태학사, 2000.
- 이창헌, 『소설 방각본의 한글 각자체 소고』, 『민족문화』 28, 2005, 225-261쪽.
- 임성래, 『동양어문화대학 도서관 소장 한국 고문헌 목록』, 『열상고전연구』 7, 1994, 304-348쪽.
- 최호석, 『방각본 출판의 경제성 시론』, 『우리문학연구』 17, 우리문학회,

2004, 361-388쪽.

최호석, 『안성의 방각본 출판 입지』, 『19세기말~20세기초 안성지역의 출판문화 연구(I)』,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안성문화원, 2005.

6.3. 발표요지, 37-52쪽.

한글학회, 『우리말큰사전』, 어문각, 1991.

모리스 쿠랑(이희재 번역), 『한국서지』, 일조각, 1994.

<Abstract>

Thesis on Colophons at Xerographic Stories Seoul Block Prints

Lee, Chang-Heoun

The aims of this thesis is to find out the aspects and implication of colophons in xerographic stories published around Seoul area. Each versions of xerographic stories are investigated very carefully, and the colophons are classified with the mark such as the firstly engraved, the first edition, the re-engraved, the new edition and so forth.

The colophons are divided into three large groups. The classified three large groups is;

The first group has the colophon like this : the first edition(개판), the new edition(신판) and so forth.

The second group has the colophon like this : the firstly engraved(개간), the newly engraved(신간), the re-engraved(중간) and so forth.

The third group has the colophon which have neither the edition nor the engraved.

Through the investigation of the Bakseongchilseojeom(박성칠서점)'s copyrighted and the Bukchonseopo(북촌서포)'s copyrighted, the edition is not distinguished from the engraved. And the edition of the Bakseongchilseojeom(박성칠서점)'s copyrighted is not counted by itself, but is counted under the considering of the Bukchonseopo(북촌서포)'s copyrighted.

The implication of the FIRST in colophons, such as the first edition(개판) or the firstly engraved(개간), indicates that the xerographic story is the first publication in total.

The implication of the NEW in colophons, such as the new edition or the newly engraved, indicates that the xerographic story is not the first publication and the another version of xerographic story had been published before.

The implication of the RE- in colophons such as the re-engraved, indicates that the xerographic story is not the first publication and is the renewal publication.

Key Words : the engraved, the edition, the first edition, the new edition, the firstly engraved, the newly engraved, the re-engraved.